



▲ 우촌관 2층에 위치한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실 내부

지난 28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도성'의 정·부학생회장 사퇴 공고문이 게시됐다. 이후 지난 18일 사과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식 설립됐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 자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전 사과대 회장단 측이 밝힌 사퇴 사유는 휴학과 내부 갈등이었다. 남도경(사회과학 4) 전 사과대 학생회장장과 서지원(사회과학 3) 전 사과대 부학생회장은 지난 2월 25일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7월 29일 남 전 회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총학은 남 전 회장의 사퇴 의사와 이후 계획 수립을 서 전 부회장에게 전달해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 전 부회장도 8

월 3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총학은 사퇴를 최종 승인했다. 정 회장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했으나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한 확답을 얻기 어려웠다"며 "신속한 정상화 체제로 전환하고자 사퇴 승인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 18일 '2026년도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비대위가 설립됐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대훈(사회과학 3) 학생이 선출됐으며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권민혁(사회과학 3) 학생이 선출됐다. 정 회장은 "본래 비대위는 사과대 트랙장으로 구성되지만 후보 전원이 직무를 거절했다"며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호선에 한해서 사과대 학생회 부원으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진(문콘 4) 총대의장은 "인준된 비대위의 활동은 이후 계획을 수립

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회 간부가 받는 간부봉사장학금(이하 간부장학금)은 남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에게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간부장학금은 학생회 간부, 학군단 등 교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내 장학의 일종이다. 본교 『장학금 규정』 <별표1>에 따르면 간부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 및 선발 기준을 확정한다. 전 사과대 회장단의 경우 간부장학금은 활동 기간인 1학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수습방안과 인수인계 절차 역시 마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간부장학금 지급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사과대 학생회의 공약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대여

'도성' 학생회 사퇴 과정

- 2월 25일 새내기새로배움터 이후 회장단 갈등 발생
- 7월 29일 정학생회장 남도경 사퇴 의사 표명
- 8월 3일 부학생회장 서지원 사퇴 의사 표명
- 8월 11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사회과학대학 회장단 사퇴 보고
- 8월 18일 사회과학대학 트랙장 전원 비상대책(부)위원장 거절의사 표명
- 8월 18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후 회칙 예외 사항 적용 결정
- 8월 21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내부 인원 2인으로 비상대책(부)위원장 구성
- 8월 24일 확대운영위원회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심의
- 9월 18일 대의원 총회에서 비상대책(부)위원장 설립

사업, MT 등의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자격으로 기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제시한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후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퇴에 대해 총학 측은 사과대 학생의 권익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학생회 운영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며 "앞으로는 학생자치기구 전반에서 더욱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후 학생회 사퇴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술회했다.

비대위 역시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우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과대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미래플러스대학 4개 트랙 신설됐다

미래플러스대학(이하 미플대)에 4개 트랙이 신설된다. 지난 4월 통합된 'AI디지털융합인재학부' 산하에 ▲AX디자인트랙 ▲AI법행정융합트랙 ▲AI경영컨설팅트랙 ▲AI디지털융합트랙이 새롭게 구성된다. 해당 트랙은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설을 통해 2027년 미플대 신입생은 AI디지털융합인재학부로 입학한 뒤 자신의 진로와 희망 직무에 따라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각 트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시에 다른 트랙의 교과목이나 모듈형 교육과정(MD)을 수강하는 등 전공 간 융합 학습도 가능하다.

신설된 트랙은 미플대 소속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 제원된 트랙은 산업 수요와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 수요, 교육과정의 적절성, 산학협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으며, 지난 7월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이수 기준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정미영(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현재 트랙제 개편에 따른 세부 교과목과 교육과정은 마련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이번 신설을 통해 융합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 과정 및 진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팀장은 "트랙 신설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여건과 진로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26학년 하반기 한성대 ROTC 모집

모집 기간: 8월 31일 ~ 10월 31일

압도적 혜택

-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 원
- 임영훈련비 약 400여만 원
- 품위유지비 매월 28만 원

한성대 단독 지원

- 학점 3.5 이상 전액 장학금
- 여후보생 매학기 100만 원

글로벌 & 리더십 스펙

- 美 텍사스 A&M 대학 리더십 연수
- 국내외 전사적지 탐방
- 24만 동문 네트워크



가을과 하나된 새학기의 캠퍼스

2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동아리 박람회·개강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2026학년도 2학기 동아리 박람회(이하 동아리 박람회)’와 ‘개강 축제’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각 부스는 동아리 홍보를 비롯해 학생들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임과 간식 등을 준비했다.

각 동아리 부스는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다. 동아리연합회 ‘VYNE’을 비롯해 ▲공연예술분과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극회, TRIAX, NOD, brillante, 4호선미이크 ▲종교분과 CCC, UBF, IVF ▲학술분과 H-LEP, 썬들, FLASH, DC&M, ASPIRE, TeamODD, TIME, UMC ▲체육분과 HTM, TURTLES, UP, 피닉스, 버팔로, 한검회, 한얼 ▲평면예술분과 P.I.G, 이무기, 영화다습, 매나니로, 한성타이포 ▲취미봉사분과 해랑사리우, 별조각, 낭동이 등 35개의 동아리 부스가 운영됐다. 각 동아리 부스에서는 동아리만의 특색이 들어간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연극 동아리인 낙산극회는 설문지 작성을 통해 가장 부합하는 역할을 찾는 ‘연극 역할 유형 테스트’를 진행했다. 성격 유형에 따라 배우, 연출, 무대, 오프 등의 각기 다른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젤리 등의 상품이 제공됐다. 문서진(기계전자 2) 낙산극회 회장은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다”며 “다양한 동아리를 알아가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독교 동아리인 CCC는 ‘기도 우체통’ 활동을 기획했다. 학생이 고민을 적어서 제

출하면 부원이 기도를 해주는 형식이다. 박성준(인문 2) CCC 회장은 “비가 와서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줘서 감사하다”며 “CCC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IT 프로젝트 동아리 UMC는 동아리 부원이 개발한 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토 부스를 운영했다. 촬영한 사진을 SNS 등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과 스타벅스 상품권을 상품으로 제공했다. 유상완(컴공 4) UMC 회장은 “직접 사진 촬영 앱과 프레임을 제작했다”며 “다들 참여를 잘해줘서 즐겁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구 동아리인 버팔로는 다트 던지기와 축구 관련 상식 퀴즈를 준비했다. 스티키볼 다트는 500점 중 410점을 정확히 기록한 학생에게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증정했다. 축구 상식 퀴즈는 상·하 난이도로 구성됐으며 10문제 중 8문제를 맞춘 참여자에게 젤리가 제공됐다. 박정우(사회과 학 4) 버팔로 회장은 “축구를 꼭 발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틀어 스티키볼 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 동아리 P.I.G는 부원들이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고 참여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하는 행사와 다른 그림 찾기 이벤트를 마련했다. 부스 참여자는 과자나 음



▲‘UP’ 부스에서 농구공을 던지는 학생

료수 등의 간식을 제공받았다. 최현민(사회과 학 3) P.I.G 회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학생들이 참여해줘서 기쁘다”며 “2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좋은 행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봉사 동아리 해랑사리우는 ‘해랑 슬롯’과 ‘N행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랑 슬롯은 게임의 진행을 맡은 3명의 부원이 여러 물건 중 하나를 동시에 고르고, 3명 모두 일치한다면 부스 참여자가 상품을 수령하는 게임이었다. N행시 이벤트의 경우 해랑사리우의 특색을 드러내는 ▲세계 ▲해랑 ▲진바가 단어로 제시됐다. 참여자가 지은 N행시는 동아리 회장단의 심사를 거쳐 1, 2등을 선정해 각각 ‘올리브영 기프트콘 1만 원권’과 ‘메가커피 기프트콘 5천 원권’이 증정됐다. 해랑사리우의 김현승(인문 1) 해랑사리우 회장은 “봉사에 대한 의미도 고취시키고 동아리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해랑사리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IVF’ 운영진이 부스를 소개 중이다.

좋았다”고 전했다.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한 김도원(패션 2) 학생은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개강 후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리 박람회가 끝난 후 3일에는 상상관 앞 잔디광장에서 개강축제가 진행됐다. ▲총학생회 ‘온(ON:繩)’ ▲총대의원회 ‘백야’ ▲학생복지위원회 ‘서사’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인화’ ▲미래융합사회과

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도성’ ▲디자인대학 학생회 ‘LIGHT’ ▲IT공과대학 학생회 ‘점점’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사계’가 부스를 운영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총학생회 주최 행사인 ‘한성 골든벨(이하 골든벨)’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골든벨은 사전에 모집한 참가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골든벨은 O.X 퀴즈 형식이었으며, 예선을 통과한 최종 5인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화이트보드에 직접 답을 적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선에 진출한 참여자들에게는 1등부터 5등까지 상품이 차등 지급됐다. 1등에게는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와 ‘동물의 숲’ 게임 칩이 제공됐으며, 2등에게는 에어팟 4세대, 3등부터 5등까지는 배달의 민족 기프트콘 3만 원권이 지급됐다. 이번 골든벨에서 1등을 차지한 김재겸(컴공 3) 학생은 “우승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개강축제에 참여한 이태우(사회과학 2) 학생은 “개강하고 처음 진행하는 축제인 만큼 많이 참여해서 다 같이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윤지(문헌 4) 총학생회장은 “이번 개강축제를 통해 새학기를 즐겁고 활기차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전통 악기 체험을 진행한 ‘달패’ 부스



▲학생이 ‘도성’ 부스에서 행맨 게임을 하고 있다.

한성대신문

한 걸음 더 가까이 독자에게로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미래를 여는 ‘직무박람회’ 개최 ‘2026 한성대학교 상상대로 Festival(이하 직무박람회)’이 상상관과 미래관에서 지난 17일 개최됐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를 맞이한 직무박람회는 지난해와 달리 참여 대상을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고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직무박람회는 ▲명사특강 ▲직무 및 채용상담 ▲졸업생 선배의 직무 상담 ▲청년 고용정책 홍보 ▲온라인취업특강 ▲이벤트 등을 포함해 총 53개의 부스로 구성됐다. 1층에서 ▲직무 및 채용상담 ▲청년 고용정책 홍보 ▲이벤트 부스가 운영됐으며 지하 1층에서는 졸업생 선배의 직무 상담 부스 등이 마련됐다. 명사특강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한 김태호 PD를 명사로 초청해 ‘트렌드를 이끄는 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부스 참여자에게는 상품도 제공됐다. 부스 참여 도장을 받은 학생에게 선착순으로 아이스크림과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했다. 4개 이상의 도장을 받을 시 다이나메이션, 소니헤드셋 등의 경품 추첨권을 얻을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박예서(사회과학 1) 학생은 “평소 회계에 관심이 많아 금융 관련 동문 상담 부스가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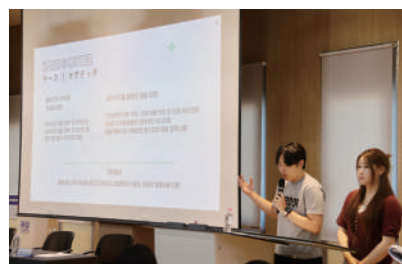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한일 학생 함께 참여한 포럼 진행

‘2026 한성 글로벌 미래세대 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7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본교를 비롯해 일본의 ▲메이지대학교 ▲나가노현립대학교 ▲릿쇼대학교 등 총 4개의 대학이 참가했다.

포럼은 ▲개회사 ▲내외빈 소개 ▲환영사 ▲단체 촬영 ▲제1세션 ▲제2세션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일본 3개 대학 연합 세션으로 진행됐다. 메이지대학교 정치경제학부 학생들의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릿쇼대학교 법학부 학생들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지자체 운영’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나가노현립대학교 글로벌매니지먼트학부 학생들이 ‘인구 감소를 고려한 대피소 운영의 방향성’을 주제로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마무리했다.

제2세션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주(사회과학 20) 졸업생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행정통합 비교’를 주



▲발표 중인 조민혁(사회과학 1) 학생

제로 발표했다. 이후 조민혁(사회과학 1) 학생과 이혜진(사회과학 1) 학생이 ‘일본의 실버경제를 통해 본 한국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발표를 진행했던 조 학생은 “앞서 진행했던 일본 학생들의 발표도 인상적이었다”며 “지역 문제를 당장 해결하긴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원 총장은 “이번 포럼이 양국 학생 교류를 넘어 현재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전했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학부생이라는 이름에 밟힌 노동



대학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학부 연구생 경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다. 학부 연구생은 학부생 신분으로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로,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대학원 진학의 ‘필수 코스’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배움의 기회라는 명목 아래 학부 연구생이 신분과 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학부 연구생은 대학에 재학하며 교수 또는 연구실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 문헌 조사부터 실험, 데이터 수집·분석 등 연구 과정의 일부를 맡는다. 참여 형태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교수의 개별 연구실에 소속돼 연구를 보조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분류돼 학생 인건비 지급 등 연구 참여에 따른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연구실에 소속된 학부 연구생의 구체적인 지위와 처우는 대학과 연구실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에서도 대학과 정부기관 간 연구개발 촉진과 인재 확보 등을 이유로 학부 연구생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정부기관 간 협력 공동 연구실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학은 연간 29억 원가량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참여 학생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학부 연구생 활성화를 장려하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종사하는 학부 연구생의 기여도에 비해 학생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인식조사 및 면담 결과」에 따르면 학부 연구생의 기여도가 아닌 학부 연구생의 학위 과정, 소속 학기 등에 따라 학생 인건비를 일괄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연구생이 학생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금액의

소득 구분에 따라 세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확인된다. 연구 참여비는 장학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의 명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식 달라진다. 이때 기타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학생 인건비가 해당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타 소득은 세율이 최대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 김철용(코리아노무법인 인사노무관리부) 팀장은 “학부 연구생이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관계는 맞지만 고용 관계 아니기에 학생 인건비는 기타 소득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 연구생이 연구 과정에 상당 부분 참여를 했음에도 논문 저자로 등재되지 않는 문제 역시 빈번하다. 학부 연구생이 단순 보조를 넘어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상당 부분 기여를 하더라도 공저자 등재조차 교수의 재량에 따라 갈린다는 지적이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은 학술지 등에 지도 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가 일례다. 이준영(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연구에 기여한 학부 연구생의 이름을 제외하거나 학부 연구생과 사전 합의된 저자 기준을 파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 연구생이 학부생의 신분을 유지하다 보니 교육과 연구, 근로 등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연구실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동에 가까운 활동을 하더라도, 휴게시간이나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 등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학생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 연구생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2025년부터 학부 연구생으로 참여한 A학생은 “별도의 휴게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야간에 활동하거나 공휴일에 활동하는 경우에도 야간 수당이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학생 인건비가 학부 연구생의 노동을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 인건비 책정 기준을 학부 연구생 지급 비용을 기준으로 한 ‘계상률’로 설정한 점이 꼽힌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학생 인건비 하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지만 전면 폐지됐다. A학생은 “주변에서 최저도 못 받는 학부 연구생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학부 연구생의 급여 문제는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부 연구생이 받는 급여 형태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진아(이산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와 학부 연구생의 실제 활동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학부 연구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논문 저자 등제가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이 꼽힌다. 교수와 논문 저자 등록, 급여 등의 합의가 있었지만 이를 교수가 준수하지 않더라도 학부 연구생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김 팀장 “학부 연구생과 교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라고 덧붙였다.

학부 연구생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학부 연구생이 학부생과 근로자라는 중첩된 성격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근로계약 체결을 약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등과 달리 대학 연구실은 대부분 비정형적 합의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학부 연구생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는 근로자와 달리 학습의 목적도 있어 법적 성격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학주(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노무사는 “학부 연구생은 근로자와 학생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생 인건비 하한액 기

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KISTEP은 연구개발 기관이 단독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라 최소 지급액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준희(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보상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구비의 세금 처리가 달라지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부 연구생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 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제시된다. 대학은 연구 기여도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하며, 연구 참여 전에 업무 범위와 성과 인정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이학주 노무사는 “학부 연구생에게도 표준 계약서 형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대학에는 별도로 근로 계약 체결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학부 연구생이 논문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논문 저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문 저자 등제가 가능한 기준 등을 세분화하고 지도교수 외 점검 주체를 상정해 정기적으로 연구실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이준희 교수는 “연구참여계획서가 없다면 사후 점검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3의 주체가 학생의 의견을 별도로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부 연구생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부 연구자의 근로자성 기준 마련 및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연구비의 지급 형태, 금액, 지급 조건 등을 대학이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식이다. 김 팀장은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내규 마련을 위한 정부와 대학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김기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외교 노트

미·이란 갈등 속 한국 정부가 줄타기 외교에 나섰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한국이 파병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란 정부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지며 한국은 두 국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구도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파병 요구가 미·이란 간 교전 재개와 함께 다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이란 전쟁 이후 3월부터 한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구해 왔었다. 이후 6월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파병 요구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동맹국을 향한 파병 요구와 경제적·관세 압박을



▲지난 16일 진행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위

병행하고 있다. 윤상용(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과 추가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부담이 경제·안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파병 요구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한 동맹 정책이 자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전통적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성과 실질적 기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동맹을 ‘비용 부담’의 틀로 재편하면서, 호르무즈 파병 요구 역시 한국의 기여도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김유철(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내부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직접적인 대규모 파병이 어려운 상황이라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파병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과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에 일률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일례로 호주와 캐나다 등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에서 이탈했다. 윤 교수는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수송한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예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위험한 초대

기존에는 한국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3월부터 이어져 온 파병 요구에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전달하며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현지 조사를 나가거나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 검토 등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효근(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신중했던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의 목적이 불분명했고 국내 방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미국의 요구와 이란의 경고 사이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파병 검토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여러 현안으로 얽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의 현안을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취소를 지시한 것 역시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비대칭적인 한미 관계로 인해 미국의 압도적인 협상력이 한국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파병 검토에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현안이 한국을 배제한 채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동맹 관리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군사적 역할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미 관계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 교수는 “호르무즈는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라 작은 마찰도 전투로 번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란과 적대적 관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의 파병 결정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만약 한국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근거로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파병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한국은 이란과 적대관계에 있지는 않다”며 “이란의 경고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안되지만 우리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익에 근거한 독자적 판단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경제 타고 사회 한 바퀴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나아가 경제 원리를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상품을 얻고 결제는 미래의 나에게 맡길 수 있는 결제 방식이 있다. ‘BNPL(Buy Now Pay Later)’은 상품을 먼저 구매한 뒤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 없이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당장의 결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명 ‘MZ의 결제방법’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러나 결제 대금이 누적되면서 다중채무와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BNPL이 이용자의 금융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까지 쉽게 알아봤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가벼워진 결제, 낮아진 빛의 문턱



자금의 시차를 메우다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재원인 ‘자금’을 필요로 한다. 개인은 소비와 주거·교육 등에 자금을 사용하며, 기업은 생산과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처럼 자금은 경제주체가 일상적인 소비와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권혁준(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조달하면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자금을 확보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각 개인은 일정한 수익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을 활용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다수의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인과 기업에 공급하고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며 개인이나 기업은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금융중개’라 한다. 금융기관은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중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금이 소비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말했다.

금융중개 과정에서 은행은 대표적으로 ‘신용’을 활용한다. 신용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한도, 금리 등 다양한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용을 전제로 한 금융 활동은 금융기관이 개인의 상환능력을 믿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금융기관이 신용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금융거래 조건을 달리하는 이유다. 김 교수는 “금융기관은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과 상환능력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적절한 곳에 배분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시점에 미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다. 이를 ‘유동성 제약’이라 한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개인은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청년의 경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자산 규모가 적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사회 진출 초기인 청년층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미래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금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쌍곡형 할인’이 나타날 수 있다. 쌍곡형 할인은 개인이 현재와 미래의 보상을 비교할 때 현재에 가까운 보상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미래에 얻을 더 큰 보상보다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선택하며, 미래의 비용 역시 현재보다 작게 인식한다. 이에 따라 당장의 소비를 우선하고 미래의 상환 부담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나타난다. 권 교수는 “미래의 상환 부담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는 쌍곡형 할인이 함께 작용하면 부채 누적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의 소비가 현재의 만족감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시기에 따라 달라져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소비 평탄화’라 한다. 개인은 소득이 줄어든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기존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시기에는 증가한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해 향후 소득 감소에 대비한다. 이처럼 개인은 소득 변동에 맞춰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 사회의 금융 안정성에 기여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이 보다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BNPL 등의 후불결제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기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개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2021년부터 BNPL이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교적 간편하게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필요한 소비를 일시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편리함에 가려진 상황의 무게

최근 상품을 구매한 뒤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인 일명 ‘BNPL’이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 등 BNPL 플랫폼 3사의 후불결제액은 1,747억 원에 달했다. BNPL 이용이 늘어나며 일각에선 후불결제에 따른 과소비와 연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NPL 플랫폼이 이용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해 금융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랫폼은 대안신용평가 제도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용을 평가한다. 대안신용평가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구매 이력 등의 단순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은 소득과 대출 여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의 정보를 종합해 상환능력을 판단하지만,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용자의 경우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BNPL이 도입됐으나 최소한의 상환능력도 살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동현(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평가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데이터가 충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자의 BNPL 이용 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수의 BNPL을 이용하며 개인의 전체적인 채무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로도 이어진다. 이용자의 BNPL 이용 현황이 플랫폼 간 공유되지 않아 이용자의 전체적인 이용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BNPL을 중복 이용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3사의 BNPL 서비스 미결제잔액은 2024년 기준 약 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용 과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BNPL 이용자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플랫폼 간 이용현황 공유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용자의 전체적인 채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역으로 플랫폼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이미 채무와 연체가 발생한 이용자가 타 플랫폼에서도 후불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과도한 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NPL의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BNPL이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되면서도 청약철회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BNPL에는 해당 권리가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결제 이후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주 교수는 “신용카드 등 대출성 상품과는 달리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 데이터를 차용한 통합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명문화·통일하는 방식이다. 서 교수는 “소득과 기존 금융부채 등 정보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BNPL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에 연계·공유해 총 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혜택, 금융 접근성 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현황을 공유해 다중 이용을 막는 것이 골자다. 그만큼 금융 접근성과 부실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서 교수는 “정보 공유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이용자가 철회를 요청하면 사용한 금액을 반환하고 BNPL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후불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 교수는 “청약철회권은 이용자가 결제 후 자신의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부연했다.



강화됐지만, BNPL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자가 결제 이후 계약을 철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플랫폼의 미흡한 대안신용평가는 평가에 플랫폼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특례가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은행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BNPL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인 평가 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금융회사와 달리 이용자에 대한 보호나 규제 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자율성을 이유로 제도의 책임성을 플랫폼에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평가 기준을 낮추면 금융 접근성은 넓어지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현황 정보의 공유가 제한되는 문제는 이용자의 BNPL 이용 현황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규정에서 비롯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현식

고립·은둔청년 50만 명 시대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일조차 쉽지 않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망설여진다. 이렇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로서 안식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사단법인 '온기'의 조현식(35) 대표다.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온기우편함을 만들어온 그는 외로움과 고립을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는다. 현재 온기우편함은 전국 113곳에 설치돼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 중이며, 약 1천 명의 온기우체부가 답장을 전달하고 있다. 외로움 속에 놓인 이들의 편지에 답장을 건네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나가는 조 대표가 꿈꾸는 사회를 들여다보자.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빠른 시대에 느린 진심을 전하다

온기의 필요성을 느끼다

어린 시절 조 대표는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다. 조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부모로부터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은 마음 한편에 남았다. 성인이 된 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조 대표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직접 사랑을 전하고자 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더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을 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저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조 대표가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어느 청년과 다르지 않게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에 입학했을 당시에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직장 취직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는 의문이었다. 그때부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도 다른 학생들처럼 취업을 잘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이 과연 나에게도 좋은 직장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이어지던 고민은 한 권의 책을 만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다. 작품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편지에 적어 보내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 편지에 답장을 보낸다. 책을 읽고 난 뒤 조 대표는 고민을 오래 이어가지 않았다. 책 속의 공간을 현실에 구현하기로 결심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으면서 현실에도 이런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바로 목공소에 가서 우편함을 만들었어요.”

따뜻한 변화의 시작

그렇게 만들어진 첫 온기우편함은 서울 삼청동 물담길에 설치됐다. 당시 조 대표에게 온기우편함은 사업이라기보다 작은 프로젝트에 가까웠다. 온라인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선다고 생각해요”

2019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졸업
2017~2021 온기우편함 대표
2021~ 사단법인 온기 대표
2024~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2025~ 브라이언임팩트재단 펠로우
2025~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2025 국제청년포럼 IFWW 조직위원



사진 제공 : 조현식 대표

누구나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온기우편함을 운영해 온 조 대표는 청년들의 고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진로나 취업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무기력과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가 무기력으로 이어지며 결국 시도 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편지를 보면 기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평소와 다른 도전에도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 대표는 온기우편함이 병원과 같은 전문기관 이전에 마음을 꺼내놓는 ‘첫 번째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접수되는 편지 가운데에는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편지는 답장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 전문기관으로 연결한다. 마음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으로 이어주고 있다. “온기우편함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조기 발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조 대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거창한 제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다시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서로의 안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건넨 작은 온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때, 개인의 외로움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함께 돌볼 수 있는 마음이 된다.

“한 사람에게 손편지로 위로를 전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으로 10명의 온기우체부를 모집하고 카페에 모여 편지를 읽으며 답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일주일에 수십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한 일이 점차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변했다. 조 대표는 온기우편함이 단순한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평소 삼청동을 걸으며 느꼈던 여유로운 분위기가 온기우편함의 취지와 잘 맞아 무작정 설치해 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편지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약 50통 정도씩 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예상치 못하게 많은 편지의 수가 온기우편함의 운영 방향을 바꿨다. 이에 조 대표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이후 온기우편함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며 활동 범위를 확장시켰다.

“온기우편함은 그동안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 장소를 꾸준히 확대해 왔어요. 현재까지 약 97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CGV를 비롯해 서울추모공원, 충남도청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마음 건강과 마음 돌봄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이를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온기우편함을 찾는 기관도 늘고 있죠.”

온기우편함은 디지털 시대에도 손편지 방식을 고수한다. 한 통의 답장을 손편지로 작성하는 데는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익숙한 현대 사회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손편지에 들어가는 시간이 오히려 진심을 전달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다른 글씨체와 표현, 때로는 오타자까지도 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들여 썼다는 흔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AI가 글을 굉장히 잘 써주고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의 글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함과 불완전함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오타자가 있을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툴 수도 있지만 그런 미완성들이 오히려 사람의 진심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어요.”

- 1 온기우편함 팝업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들
- 2 본지와 인터뷰 중인 조현식 대표
- 3 온기우편함과 조현식 대표

혈액에 드러난

도핑의 꼼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기 종료 후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도핑이란 스포츠 분야에서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주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도핑의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도핑검사 기술도 나날이 정밀해지고 있다.

도핑검사는 운동선수에게서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에 금지약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도핑검사는 시료를 채취한 뒤 물질을 분리하고, 분리된 물질의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이다. 과거 도핑검사는 대부분 소변을 채취해 진행했다. 그러나 단백질 등의 물질은 소변만으로 검출되기 어려워 최근에는 혈액을 활용하기도 한다. 혈액은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을 직접 확인하기 용이한 이유에서다. 이원재(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도핑검사는 소변검사가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소변으로 검출하기 어려운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가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혈액을 이용한 도핑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최근에는 소량의 혈액만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는 건조혈반(이하 DBS) 방식이 주로 이뤄진다. DBS 방식은 ▲DBS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이하 LC) ▲고분해능 질량분석법(이하 HRMS) 등의 기술이 연계돼 작용한다. 먼저 DBS는 피부 내 모세혈관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한 뒤 흡수성 지지체에 묻혀 건조시키는 시료 채취 방식이다. 김호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 책임전문원은 “건조혈반은 기존 혈액 도핑검사보다 채취하는 혈액의 양이 적어 운동선수의 부담을 감경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DBS는 피부에서 혈액을 채취하면서 시작된다. 혈액은 손가락이나 팔뚝 등에 미세 천자를 가해 소량의 모세혈을 채취한다.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카페인이나 테스토스테론 등 다양한 저분자 물질*이 공존한다. 채취한 혈액을 흡수성 지지체에 떨어뜨리면 혈액은 용지에 서서히 스며든다. 이후 혈액은 자연 건조되면서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고, 분석 대상 물질은 지지체에 남게 된다. 시료를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 화학적 반응이나 미생물의 활동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관·운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성장민(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

도핑 검사 방식 다변화 DBS 도입으로 편의 높여 질량분석으로 물질 구분

콘트롤센터) 책임연구원은 “자연건조는 열이나 급속 건조로 일부 물질이 변성·분해되는 것을 막아 성분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DBS 시료가 준비되면 LC를 활용해 시료 속 여러 물질 중 금지약물 성분을 분리한다. LC는 시료 속 물질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각 물질을 분리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동상’과 함께 ‘고정상’이 함께 채워진 관에 시료를 통과시키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동상은 물이나 메탄올 등의 용매를 섞어 만든 액체로, 시료 속 물질을 운반한다. 고정상은 관 안에 촘촘하게 채워진 작은 입자 형태의 물질로, 시료 속 물질과 상호작용한다. 성 책임연구원은 “고정상은 작은 입자에 물과 잘 섞이지 않는 물질을 붙인 형태로, 시료 속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물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상과 고정상에 대한 친화도***의 차이에 따라 시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분류된

다. 분자 구조, 전하 상태 등에 따라 고정상에 대한 친화도가 더 높은 물질은 고정상과 더 강하게 끌어 당겨진다. 이에 이동상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고정상에 오래 머물게 돼 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반대로 고정상보다 이동상에 머무려는 성질이 강한 물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물질마다 고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달라지면서 혼합물에 섞여 있던 성분들이 차례로 분리된다. 이때, 고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을 ‘머무름 시간’이라고 일컫는다. 성 책임연구원은 “고정상을 선호하는 물질은 느리게, 이동상을 선호하는 물질은 빨리 빠져 나오면서 시간차로 분리된다”고 말했다.

LC를 통해 분리된 물질은 HRMS를 통해 최종 구분 단계를 거친다. 분리된 물질은 이온화 과정을 거친 후 질량분석기로 이동한다. 질량분석기는 LC에서 분리된 물질을 이온으로 만든 뒤, 이온의 ‘질량 대 전하비(m/z)’를 측정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장비다. 따라서 분석하려는 물질을 이온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온화는 고전압 전기장을 가해 분자 내 전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하가 없는 중성 분자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장비 내부에서 움직임을 조절하거나 물질 간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온화 과정을 거친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김 책임전문원은 “LC를 거쳐 이온화되면 전하가 생겨 질량분석기 내부에서 전기장 등의 힘에 의해 이동한다”며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별해 장비 내부로 들여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자의 이온화 과정이 끝난 후, 본격적으

로 HRMS 과정이 시작된다. HRMS는 이온의 질량 대 전하비를 높은 정밀도로 측정해 질량이 매우 비슷한 물질도 구분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질량 대 전하비는 이온의 질량을 전하량으로 나눈 값으로, 이온이 질량분석기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이라면 질량이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쉽게 가속되고 무거울수록 같은 힘을 받았을 때 움직임의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 성 책임연구원은 “HRMS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질량을 측정할 수 있어 질량이 비슷한 물질을 구별하고 가능한 분자식을 좁히는 데 유리하다”고 전했다.

HRMS의 대표적인 방식인 ‘TOF(Time-of-Flight)’는 이온을 같은 에너지로 가속한 뒤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같은 전하를 가진 이온이라면 질량이 가벼운 이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검출기에 도달하고 무거운 이온은 더 늦게 도달한다. 따라서 측정된 비행 시간을 바탕으로 이온의 질량 대 전하비를 계산할 수 있다. 성 책임연구원은 “정확한 질량을 측정한 후 동위원소 패턴과 조각화 정보, 머무름 시간 등을 종합해 물질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LC와 HRMS를 거치면 금지약물 물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LC에서 나타난 머무름 시간과 HRMS에서 얻은 정확한 질량 대 전하비를 함께 비교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금지약물 물질은 고유한 머무름 시간과 질량 대 전하비가 나타난다. 따라서 시료에서 측정된 값이 해당 금지약물 물질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김 책임



▲도핑검사의 첫 단계인 채혈



▲혈액을 지지체에 떨어뜨린다.



▲완성된 건조혈반 시료

전문원은 “질량분석에서는 이온의 질량 대 전하비를 확인하고, 앞선 LC에서 얻은 머무름 시간과 함께 비교해 물질을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현재의 도핑검사만으로 모든 금지물질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금지물질마다 체내에 남아 있는 시간과 농도가 다르다. 또한 새로운 물질이 등장하면 기존의 검사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람(국민대학교 융합바이오공학과) 교수는 “유전자 및 세포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새로운 도핑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핑 방법을 구현하고 감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펩타이드처럼 체내 농도가 매우 낮아 검출이 어려운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LC와 HRMS를 결합한 분석법을 연구 중이다. 또한 DBS 역시 분석 가능한 금지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기존 소변 및 혈액 검사를 보완하는 검사 방식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이원재 교수는 “테스트의 정밀성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줄여 검사 빈도를 늘리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흡수성 지지체 : 혈액을 흡수해 고르게 퍼뜨리고 건조된 상태로 고정하는 종이나 소재

**저분자 물질 : 분자량이 작고 구조가 단순해 물이나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

***친화도 : 둘 이상의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결합하려는 성질



▲도핑검사에 활용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책임없는 사퇴가 빛은 촛극

지난 28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도성’의 정·부학생 회장이 돌연 사퇴했다. 사퇴 공고문과 입장문에 따르면 회장단의 갈등과 개인 사정이 주요 사유였다. 투표로 믿음을 보인 학생들은 물론 앞으로 선출될 학생자치기구에게도 무책임한 처사다.

총학생회 측은 사과대 전 회장단이 지난 2월 진행된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에서 한차례 내부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7월 29일 남도경(사회과학 4) 전 사과대 정학생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서지원(사회과학 3) 전 사과대 부학생회장도 8월 3일 잇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사퇴 면담과 논의가 이어졌지만 직무 수행 의지가 없어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퇴가 수리됐다. 이에 사과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 ‘2026학년도 하반기 1차 대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 설립됐다.

학생자치기구의 무책임한 중도 사퇴는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라움’ 역시 새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비대위를 꾸려 활동을 이어간 바 있다. 이로 인해 동아리 지원금, 비교과 포인트 등 활동 전반에 차질이 생겼다. 학생자치기구장의 사퇴가 구성원 전체의 권리와 활동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학내외에서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학내에서는 공약과 향후 사과대 소속 학생들의 복지 등을 걱정하기도 했으며 타 대학 학생들은 회장단의

책임감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이다.

애초에 자치기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식이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사퇴 과정에서 신뢰는 물론, 함께 활동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남 전 회장은 사퇴 당시 서 전 부회장에게 향후 계획 등의 후속 대처를 떠맡겼고, 서 전 부회장은 “그걸 떠맡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거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치기구의 대표직을 수행했던 이들의 모습이 라 하기에는 무책임한 촛극에 가깝다.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을 무시한 채 사퇴라는 결정 자체만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퇴가 무책임한 ‘탈출구’가 되서는 안 된다. 투표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당선을 위해 함께 땀 흘린 운동본부원들과 학생회 운영을 맡아온 집행부원들의 노고까지 무력화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든든한 울타리’. 도성이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11월 총선거 공동정책자료집」의 출마의 변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학우들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정작 책임이 필요한 순간 자리를 비운 모습을 울타리라고 볼 수 있을까. 책임을 지지 않는 자치기구에 보낼 신뢰는 어디에도 없다. 사퇴의 반복이 결국 학생자치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 학생들은 화려한 슬로건보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바란다.

김혜윤 편집국장

도시 황기자의 시선

지구를 식혀줄 원대한 한 걸음

제2회 905성북기후정의행진이 지난 5일 개최됐다. 성북기후행동 외 37개 단체는 성북구청에서 월곡역까지 약 4km를 걸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한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재난 취약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 2,818명이었던 온열 환자 수는 2025년 4,460명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대책과 사후 지원만 반복되며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세부 대응 기준은 부실한 실정이다. 시민들이 다음 계절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도록,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기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기자수첩

정신건강의 벼랑에 선 청년들이 있다. 이들을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가장 먼저 살피 조기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9세 청년층의 정신건강문제 경험률은 76.6%에 달한다. 정신질환과 자살 고위험군에 놓인 청년부터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은둔하는 이들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은 더 이상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조기에 발견해야 할 상담센터의 상황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코로나19, 대학(원)생 심리·정서 지원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대학 상담센터 상담사 1명이 맡는 재학생 규모는 최대 1,505명에 달한다.

상담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등을 통해 각 대학에 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상담센터 운영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 채 사실상 방치했다. 근래 대부분의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거나 너무나 많은 행정부서·업무가 혼재된 상황에서 상담센터에 온전한 관심을 쏟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혹자는 상담센터가 학생들의 불안한 심

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상담센터는 심리 치료의 중요한 첫 단추다. 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기관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상담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의 대안으로서 정신건강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상담센터의 인력·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 규모와 학생 수에 따른 최소 상담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문가관 및 병원과의 활발한 교류 역시 동반되어야 할 테다. 힘든 마음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기발 곳이 학생들에게 절실하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낙산만평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낙산에 올라 ‘짧음의 파도’에 잃어가는 것들, 그리고 깊이

우리는 지금 ‘짧음의 파도’ 속에서 살고 있다. 10분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유튜브 영상들은 이젠 1분으로 잘려 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긴 글을 마주하면 한숨부터 쉰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가고 있을까? 짧은 콘텐츠는 너무 효율적인 방식이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3분과 같은 ‘비어있던 시간’들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것보다 효율적인 방식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콘텐츠를 향한 큰 과제 또한 남아 있다. 바로 ‘깊이’보다 ‘효율성’이 우선 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짧은 콘텐츠는 긴 영상에 녹아들어 있는 맥락을 표현하기 힘들다. 인물의 내면과 같은 ‘디테일’은 영상을 짧게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 잘려 나갈 수밖에

에 없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정보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머릿속에서 흐려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

더 문제인 점은, 단순히 콘텐츠의 형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예전이라면 당연하게 보고 읽을 영상이나 글들에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를 애색해한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점점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단순히 ‘숏폼 콘텐츠를 줄이자’는 말은 이젠 현실적이지 못한 해결책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길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이다.

짧은 영상을 보더라도 그 뒤의 맥락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며 필요하다면 검색을 통해 직접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결국, 짧은 콘텐츠를 보더라도 짧게 사고 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다.

깊이 있는 사고는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걸러나가야 하는 능력이다. 짧아진 콘텐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변화이다. 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능력이고,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짧음의 파도에 밀려가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가 잃어버릴 뻔한 ‘깊이’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우혁(문론 2)

기자사령

임	퇴
수습기자 이규림(사회과학 2) 이예원(사회과학 2)	김나연(사회과학 1) 장희원(사회과학 1) 정기자 유가은(문론 3)

동정란

오세종(시응용학과) 교수

오 교수는 SW중심대학사업단 부단장으로서 지난 8월 27일부터 ‘2026학년도 AI·SW 예비창업팀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27’를 준비하고 있다.

나은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나 교수는 오는 11월 7일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AI 시대, 인간의 역할과 인간을 위한 교육을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한다.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관 김남용 편집국장 김혜윤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의화정

전공은 송곳처럼, AI는 나의 아군으로

AI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내가 공부하는 전공도 AI가 대신하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도 의미가 있을까?’ 학생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도 이해된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을 살아갈 학생들이 미래를 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한다.

‘전공(專攻)’이라는 말에는 넓은 학문의 세계에서 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고, 그 분야를 깊이 파고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AI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단순히 AI를 다룰 줄 아는 것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AI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자신의 전공을 송곳처럼 깊게 파고들 때 문제를 발견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며, AI가 내놓은 결과를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언어생성AI활용」 수업에서 비IT 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AI와 바이오 코딩을 활용해 직접 구현하는 과정을 함께 했다. 구현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회원 정보를 계속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계기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직접 적용해 보는 식이다. 어려운 기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해지는 순간, 배워야 할 지식이 된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개념도 직접 부딪혀 질문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이 된다. AI는 답을 대신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배움의 영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각자의 전공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만의 강점은 AI와

만날 때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강점을 AI와 결합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전공은 깊이 파고들고, AI에게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나의 강한 아군으로 조련해 보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비교하며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스스로에게 “잘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면 어떨까.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현주(시응용학과) 교수

당신의 문장이
피어나는
자리



제41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2026.09.21. ~ 10.26. 오후 6시



공지사항